개 요

농어촌 삶의 질 이슈리포트에서는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나 정책 이슈에 대한 전문가, 현장 실무자, 주민 등의 의견을 담고자 한다.

이슈리포트 제8호에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서 규정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을 살펴보았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매년 수립한다. 2017년에는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안전 등 7대 부문의 176개 정책 과제가 시행계획에 포함되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는 11건의 정책을 선정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다. 본 호에서는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운영 사업',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사업', '들녘경영체 육성 사업' 등 경제활동·일자리 분야의 정책 3건을 조사한 내용을 담았다. 정책별로 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그 성과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농어촌 삶의 질 이슈리포트 발행 목록

연도별	호수	이슈
2015년	1호	**2015년 7월 주거급여 개편 시행, 앞으로 과제는?**
	2호	지방교육재정 개혁, 농촌학교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과제는?
2016년	3호	농촌 일자리 지원 사업, 그 역할과 개선 과제는?
	4호	**농촌의 영유아 보육, 그 실태와 개선 과제는?**
	5호	**대체·전환복무제도 폐지가 농어촌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공중보건의사제도를 중심으로–**
	6호	**농어촌 서비스 기준, 그 성과와 과제는?**
2017년	7호	농어촌 삶의 질 정책 현장 점검 보고 – 문화여가 · 평생교육 분야 –
	8호	농어촌 삶의 질 정책 현장 점검 보고 – 경제활동 · 일자리 분야 –

CONTENTS

농어촌 삶의 질 정책 현장 점검 보고
- 경제활동 · 일자리 분야 -

1.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운영 사업 ····· 3

2.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사업 ····· 11

3. 들녘경영체 육성 사업 ····· 17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운영 사업

정도채(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지숙(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농촌 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업 노동력이 부족하다. 농업인 중 상당수가 농번기에 인력 부족 문제를 호소한다. 농가 인구가 줄고 원예·축산업이 발전하면서 농업 분야의 고용 노동력 수요도 계속 증가하였다.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농업 분야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 사람들 모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실시한다.

▮ 추진 연왕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발전위원회가 추진하는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의 일환

* 지역행복생활권은 2~3개 시·군 지자체로 구성되며 양질의 기초 인프라, 일자리, 교육, 문화, 의료, 복지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일상생활 공간을 의미한다. 농어촌생활권, 도농연계생활권, 중추도시생활권으로 구분한다. 지역에서 자율적 의사에 따라 설정한 생활권에서 실시하는 지자체 간 협력 사업 및 주민체감형 사업을 선도사업이라 한다.
자료: 지역발전위원회(2013). 「지역행복생활권 가이드라인 해설집」.

으로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운영 사업'을 주관하여 시행해 왔다. 2014년에 5개 지역행복생활권(13개 시·군)을 선정하여 2015년부터 사업을 실시하였다. 2016년에 1개 생활권(3개 시·군)이 추가로 사업에 참여하였고, 2017년에는 2개 생활권(6개 시·군)이 신규로 사업을 실시하였다. 지금까지 총 8개 생활권(21개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하였다. 지원 예산 규모는 생활권별로 상이하며 3년에 걸쳐 국비가 지원된다. 2017년에는 총 29억 원(국비 80%, 지방비 20%)이 지원되었다.

사업을 희망하는 생활권은 지역발전위원회에 사업을 신청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업의 중복성을 검토한 후 지역발전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사업 대상 생활권을 선정한다. 선정된 생활권은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승인받고 국고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실시한다.

▮ 사업 내용

사업을 실시하는 생활권에 소속된 지자체는 개별적으로 농산업인력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약칭)를 운영한다. 지역에 있는 인력 중개 관련 조직에 위탁하거나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채용해 운영하며 지자체 담당 부서는 센터 업무 일부를 담당한다.

센터는 농업인, 농업 법인 등 농업 경영체 및 생산자 단체의 구인 활동을 지원하고, 농산업 분야에서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알선한다. 센터별로 구축한 정보시스템에 지역에서 수집한 농산업 분야 구인·구직 정보를 취합하여 관리하며, 이를 여러 가지 경로로 구인·구직자에게 제공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이라고 약칭)을 통해 센터의 구인·구직 정보 안내 및 관리 활동을 지원한다. 농정원은 전국의 농산업 관련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www.agriwork.kr)를 운영하며,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참여하는 생활권별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각 지역의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한다.

사업비는 센터의 일자리 알선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정보시스템을 운용하는 데 사용된다. 이외에도 센터를 거쳐 농장에 고용된 사람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려고 각종 방식으로 사업 예산을 투입한다. 생소한 농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들을 위해 농작업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농협의 안전보험에 무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교통비와 숙박비를 지원하여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촌 지역 및 농장으로 많은 구직자를 유인한다.

그림 1.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운영 사업 추진 체계



자료: 농산업인력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agriwork.kr).

2. 사례조사 결과*

▮ 사례지역 사업 현황

○○군은 농번기 인력난을 해소하려고 농산업 분야 인력 중개 조직을 사업 이전부터 운영해왔다. 2012년에 관련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3년에 설립한

*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 중 1곳을 선정하여 2017년 9월 1일에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업 담당자와의 면담 내용과 방문한 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례조사 결과를 정리하였다.

‘상시 고용 사회적 협동조합’에 일자리 알선 서비스와 농작업자 통근 서비스를 위탁하여 제공하였다. 2015년부터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운영 사업’을 실시하면서 사회적 협동조합이 일자리 알선 등 농산업인력지원센터의 주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군 담당 부서는 센터의 일부 업무를 담당하였다.

○○군은 농작업자 숙박 시설 조성, 구인·구직 정보시스템 구축, 농작업자 농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 참여 농작업자 사후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상시 고용 사회적 협동조합’은 농산업 분야 일자리 알선, 농작업자 통근 서비스 제공, 안전 보험 지원, 농작업자 안전 교육, 사업 홍보 등 센터에서 실시해야 하는 주요 업무를 수행하였다.

▮ 사례지역 사업 추진 내용

○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운영 사업 예산 지원 현황

○○군이 농산업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 3년 간(2015~2017년) 투입하는 예산은 총 8억 5,000만 원(국비 5억 8,000만 원, 군비 2억 7,000만 원)이다. 2012년부터 관련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9,000만 원의 군 예산을 확보해 두었다.

국비에서 3억 원은 농작업자 숙박 시설 마련에 사용하였다. 숙박 시설을 지원해야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군에서 며칠에 걸쳐 농작업에 참여할 수 있다. 기존에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으로 지은 다목적 회관을 증축하였고, 내부시설을 보수하고 유지하는 데 8,000만 원이 추가로 투입되었다.

농업인과 농작업자 간 실시간으로 구인·구직 정보를 공유하도록 정보시스템을 운영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군은 3년 간 1억 8,000만 원을 투입하였다. ○○군의 농산업 일자리 정보를 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취합된 정보는 워크넷, 알바천국 등을 통해 구인·구직자들에게 제공된다. 각종 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1명이다. ‘상시 고용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채용하였으며 사업 예산에서 인건비를 지급한다.

농작업자 통근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제공하여 지역 운수 업체와 마찰을 피하였다. 군에서 제공한 승합차 4대로 농작업자를 농장까지

수송한다. 2016년에는 통근 서비스를 234회 운영하였다. 이를 이용한 농작업자 수는 총 2,676명이다. 타 시·군에서 오는 농작업자에게는 수송 버스 임차료(단체) 또는 왕복 버스 요금(개인)을 지급한다.

농작업자들이 안전보험에 무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2016년에는 농작업자 1,381명이 농협의 상해보험 상품에 가입하였다. 또한 안전 용품(앞치마, 마스크, 팔토시, 전정 가위 등) 200세트를 구입하여 농작업자들에게 지급하였다.

농작업 지식 및 경험이 부족한 농작업자들을 대상으로 농업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였다. 농작업 요령 및 안전 이론 교육(1일)과 작목별 농작업 기술 교육(3일)을 실시하였다. 작업 일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였으며 평균적으로 1년에 2회 실시하였고 100여 명이 교육받았다.

▮ 사례지역 사업 추진 실적 및 성과

○ 농번기 인력난 해소 및 인력 소개비용 절약

2016년 ○○군의 농가 116가구는 센터를 거쳐 농작업자를 고용하여 농번기 인력난을 해소하였고, 인력 소개비용을 절약하여 생산비용을 절감하였다. 또한 센터는 1,781명(군 내 981명, 군 외 400명)에게 농산업 분야 일자리를 알선하여 이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도왔다.

농가가 유료 직업소개소를 통해 농작업자를 구하면 소개비, 차량운행비, 안전 용품 구입비 등 1명당 20,000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 하지만 센터를 이용하면 임금을 제외한 기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2016년 기준으로 농가 1호당 10건의 구인 실적이 있다고 가정하면, 전체 116호 농가에서 한 해 동안 2,320만 원의 생산비용을 절감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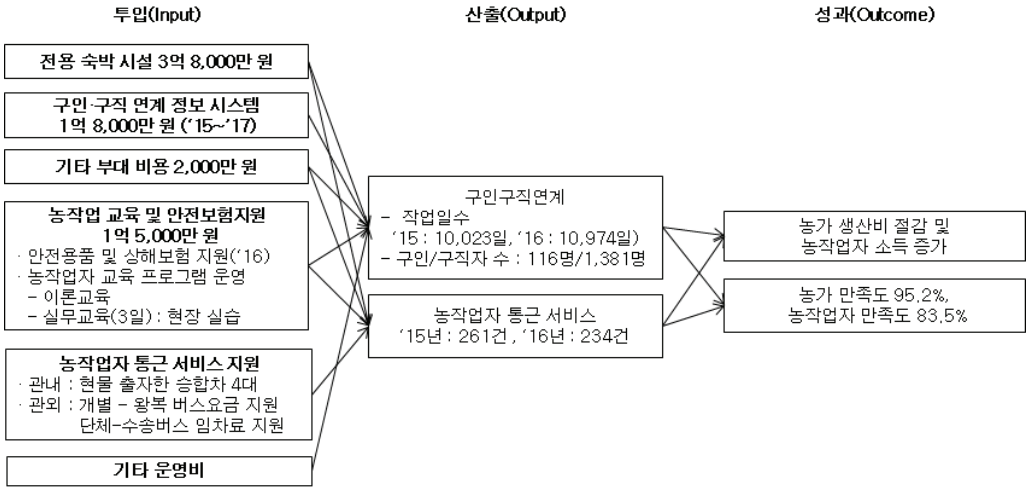
농작업자가 유료 직업소개소를 통해 일자리를 구하면 소개비, 교통비, 보험가입비 등으로 약 10,000원을 소개소에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센터는 무료로 일자리를 알선하므로 농작업자 1인당 10건의 구직 실적이 있다고 가정하면, 연간 1억 3,810만 원(10,000원×10건×1,381명 = 138,100,000원)의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보인다.

○ 농산업 분야 고용 지원 서비스 체계화

이전에는 지자체나 고용 지원 기관에서 자체 사업으로 농산업 분야에 특화된 고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사업 범위가 한정되어 있었고 예산이 부족해 계속 추진하기 어려웠다.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농산업 분야 고용 지원 서비스를 실효성 있게 제공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농산업 분야에 특화된 고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농번기 인력 확보에 필요한 숙박시설, 구인·구직 정보시스템 등을 우선적으로 구축하였고, 센터 운영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확보하여 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였다. 또한 안전 보험 및 농작업자 통근 서비스 등을 지원하여 농작업자 고용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개별 농산업 경영체도 적극적으로 센터를 이용할 수 있었다.

그림 2.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운영 사업의 성과(○○군)



3. 시사점

▮ 새로운 형태의 지자체 간 협력 사업으로 추진

실제로 사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센터는 지자체별 책임하에 개별적으로 운영되었다. 일부 컨설팅 활동을 제외하고 생활권 단위에서 지자체 간 연계·협력 활동은 미미하였다.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같은 생활권에 소속된 지자체들의 주요 재배 작물이 유사하여 농번기 시기가 겹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농작업자를 구하려고 서로 경합하기도 하였다. 주요 재배 작물이 상이한 인접 시·군이 협력하거나 생활권 단위에서 농산업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해야 협력 사업의 성과가 확산될 수 있다.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운영 사업'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계속 실시하려면 사업 실시의 지리적 범위를 농촌 지역의 농산업 구조를 고려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어렵다면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지자체 간 협력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구인 · 구직 정보시스템 개선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농산업 분야의 구인·구직 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주요 사업 내용으로 설정하였다. 농산업 인력을 중개하려고 구축한 구인·구직 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일자리 정보는 워크넷, 알바천국 등에 제공되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구인·구직자들이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스마트폰 활용이나 인터넷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온라인상의 구인·구직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특히 농촌지역에서 구인·구직 활동은 대부분 전화, 전단지 등 종래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정보시스템의 실효성에 대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센터 직원들은 정보시스템의 운영 관리 업무가 효과에 비해 과중하다고 보고 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사업

박지숙(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사업’의 목적은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데 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라고 약칭)는 경력 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창업 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 고용률을 제고하고자 한다.

▮ 추진 연왕

2004년부터 운영되던 경력단절여성 지원센터의 명칭을 2008년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변경하고,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여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사업’을 2009년부터 실시하였다. 2016년까지 488억 9,200만 원의 예산(국비+지방비)이 투입되었고, 총 150개소의 새일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였다. 운영 목적에 따라 일반형, 경력 개발형, 광역센터, 농어촌형 등 4가지 유형으로 새일센터를 구분한

다. 일반형 126개소, 경력 개발형 8개소, 광역센터 10개소, 농어촌형 6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였다. 2017년에는 5개소가 추가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시·도 지자체는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수립한 새일센터 지정 계획에 따라 각 시·도에서 새일센터를 운영할 기관을 선정한다. 센터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에서 제출한 사업 계획서를 시·도 지자체에서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새일센터 운영 기관을 지정한다.

표 1.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시·도별 지정 현황(2017년 1월 기준)

단위 :개소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일반형	126	25	9	4	7	5	2	2	1	20	7	4	8	7	8	7	8	2
경력개발형	8	2					1			4		1						
농어촌형	6										1	1	2	1				1
광역센터	10		1		1		1			2		1		1	1	1	1	
계	150	28	10	4	8	5	3	2	1	26	8	7	10	9	9	8	9	3

▮ 사업 내용

지자체에서 새일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한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사업 운영을 총괄하지만 세부적인 운영 계획은 지자체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한다.

새일센터는 경력 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직업 및 진로 상담을 실시하고 취업 정보를 제공한다. 취업을 도우려고 직업 교육 훈련도 실시하며, 구직자를 발굴하여 일자리를 알선하고 인턴쉽 기회도 제공한다. 이외에도 새일센터를 거쳐 취업한 여성의 경력 개발을 지원하고, 이들이 고용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지원한다.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개선하는 활동도 꾸준히 추진한다.

대부분의 새일센터는 위에서 열거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형 새일센

터다. 경력 개발형 새일센터는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갖춘 경력 단절 여성이 유관 분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어촌형 새일센터는 농어촌 지역의 경력 단절 여성이 농어업 및 6차 산업 분야로 취업하고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특화되어 있다. 광역센터는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지역 일자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 내 새일센터의 역량을 강화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2. 사례조사 결과*

▮ 사례지역 사업 현황

○○군은 2011년에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려고 ○○군 여성취업센터를 자체적으로 설립하였다. 2013년에는 ○○군 여성취업센터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사업'에 따라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지정받으면서 기존 업무를 확장하여 이어나가고 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농어촌형 새일센터로 지정받았다. 군에 거주하는 경력 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과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업을 지원한다. ○○군에서 직접 운영하며 센터장, 센터 실무 담당자, 취업설계사 4명 등 6명의 직원은 군청에서 채용하였다.

▮ 사례지역 사업 추진 내용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사업 예산 지원 현황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2016년 운영 예산은 총 2억 4,421만 원으로 국비 1억 5,867만원과 군비 8,554만 원이 투입되었다. 직업 교육 훈련 및 창업 프로그램 과정을 운영하고 각종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로 사용되었다.

2016년에는 '농촌 친화 뷰티 전문가 양성', '빅데이터를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 양성', '문화 관광 도시 여건을 고려한 교육' 등 3개 직업 교육 훈련 과정을 운영하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사업'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 중 1곳을 선정하여 2017년 8월 8일에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업 담당자와의 면담 내용과 방문한 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례조사 결과를 정리하였다.

였다. ‘농촌 친화 뷰티 전문가 양성’ 과정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실습 교육 위주로 진행하였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 양성’ 과정은 컴퓨터 사용을 어려워하는 여성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운영, 온라인 마케팅 등의 교육을 진행하였다. ‘문화 관광 도시 여건을 고려한 교육’ 과정에서는 지역 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창업 프로그램 과정은 ‘창업 가능 분야 전문 교육’, ‘기업가 정신 교육’, ‘창업 준비 과정 교육’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하였다.

또한 지역의 여러 기관 및 기업과 협력하여 새일센터를 찾아오는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인턴쉽 기회를 제공하였고,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찾아가는 취업 상담소도 운영하여 새일센터 업무 홍보, 취·창업 상담, 경력 단절 예방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였다.

▮ 사례지역 사업 추진 실적 및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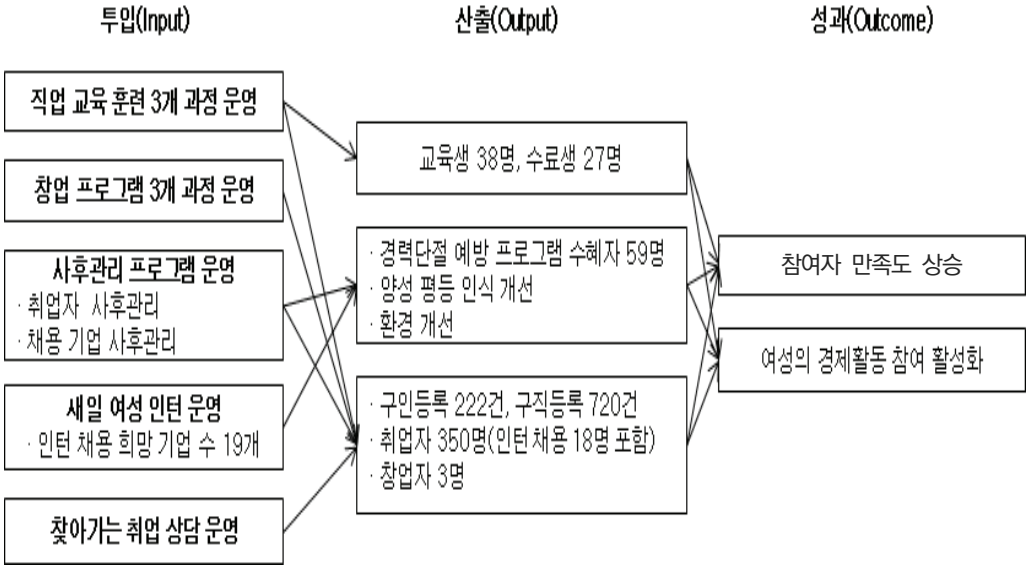
○ 경력 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사업’은 ○○군에 거주하는 경력 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 시켰다. 직업 교육 훈련 과정과 창업 프로그램 과정을 운영하여 잠재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경력 단절 여성의 수를 늘렸으며, 새일센터에서 제공하는 인턴쉽 기회를 활용하여 취업에 성공한 여성들도 많았다. 또한 지역 내 기업이나 여성 직장인이 직장 내 양성 평등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도록 경력 단절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2016년에 운영한 3개의 직업 교육 훈련 과정에는 경력 단절 여성 38명이 참가하였다. 질병, 임신, 출산, 거주지 이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에 포기한 11명을 제외하고 총 27명이 과정을 수료하였다. 인턴쉽은 특히 결혼 이민 여성이 많이 신청하였는데 총 19명이 인턴으로 지역 내 기관 및 기업에서 근무하였고, 이중 18명이 인턴쉽으로 근무한 곳에 정식으로 채용되었다. 경력 단절 예방 프로그램에는 59명이 참여하였다.

이외에도 새일센터의 각종 취업 지원 서비스로 취업에 성공한 경력 단절 여성이 많다. 2016년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350명의 취업자와 3명의 창업자를 배출하였다.

그림 1.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사업의 성과(○○새일센터)



3. 시사점

▮ 지역 내 유관 기관들과 취업 지원 네트워크 구축

새일센터의 역량만으로 지역 내 일자리 수요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취업지원센터, 기업 등 유관 기관들과 연계·협력하여 일자리 수요를 수시로 발굴하고 경력 단절 여성들이 각종 고용 기회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역 내에 취업 지원 네트워크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새일센터는 지역 내 기관 및 기업체와 제휴하여 경력 단절 여성의 인턴쉽 기회를 늘리고, 경력 단절 여성들이 기관 및 기업체를 방문하여 직접 취업 상담을 받는 기회를 지금보다 확대해 나가야 한다.

▮ 직업 교육 훈련 과정 편성 방법 개선

새일센터에서 운영하는 직업 교육 훈련 과정은 지역의 일자리 수요를 세심하게 고려하여 편성되지 않는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사업'에서 제시하는 직업 교육 훈련 과정 목록에서 지역에 가장 적합한 과정을 선택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전에 진행한 교육 과정 중 취업률과 수료율이 높은 과정이 목록에 포함된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새일센터가 지역의 일자리 수요와 관련이 있는 직업 교육 훈련 과정을 새롭게 편성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드물다. 물론 어떤 종류의 교육 과정이라도 경력 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잠재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경력 단절 여성들이 지역에서 당장 일자리를 구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직업 교육 훈련 과정을 새일 센터에서 제공하는 인턴쉽 기회와 연계하여 기획하고, 실제 지역 내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는 교육 과정을 중장기적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들녘경영체 육성 사업

박지숙(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들녘경영체* 육성 사업’은 다수의 쌀 생산 농가들이 들녘경영체를 조직하여 50ha 이상의 들녘(논)에서 쌀을 공동으로 생산하고 관리하도록 지원한다. 규모화·조직화된 영농으로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 기반을 구축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 들녘경영체 인정 기준: 집단화된 농지 50ha 이상을 대상으로 25인 이상의 농업경영체가 참여하여 공동영농조직을 구성하고, 육묘에서 수확까지 생산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공동 농업 경영체를 말한다. 공동 영농 농지가 일부 분산되어 있더라도 공동 농작업 수행이 가능하여 공동 영농의 이점을 살릴 수 있는 경우는 들녘경영체로 인정한다. 소재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50ha 이상 공동 경영 단지를 1개소로 인정하되, 농지가 강이나 산으로 구분되거나 공동경영 면적이 400ha 이상인 경우는 별도 경영체로 선정 가능하다. 본 사업에서는 농업법인이나 농협이 정부지원 RPC와 연계하여 계약재배·출하하는 경우에만 들녘경영체로 인정하며, 계약재배만하고 지도·감독 및 공동 생산을 하지 않는 경우 운영 실적이 1년 미만인 농업법인은 들녘경영체 선정에서 제외한다. 단, 농업법인으로 연간 벼 2,000톤 이상의 가공 능력이 있는 도정 공장을 자체 보유하거나 그러한 도정 공장과 계약재배하고, 들녘경영체 생산 물량의 80% 이상을 수매하여, 그 물량의 50% 이상을 품종 표시 자체 브랜드로 출하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한다.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7). 「2017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 추진 현황

농림축산식품부는 2009년부터 '들녘경영체 육성 사업'을 추진하였다. 2016년까지 국비 총 245억 6,400만 원을 투입하였다. 매년 50ha 이상의 논에서 여러 농가가 공동으로 쌀을 생산하고 관리하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정부지원 RPC(미곡종합처리장) 등이 사업을 신청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종적으로 사업 지원 대상 조직을 선정한다. 선정된 조직에는 들녘경영체 조직화에 필요한 교육·컨설팅을 제공하고 시설과 장비를 지원한다. 교육·컨설팅은 최대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009년 12개소를 시작으로 2016년까지 272개소가 들녘경영체로 선정되어 교육·컨설팅을 최소 1회 지원받았고, 이 중에서 교육·컨설팅을 2회 받은 곳은 118개소, 3회 받은 곳이 69개소이다. 또한 272개소 중 123개소가 시설과 장비를 지원받았다.

표 1. 들녘경영체 육성 사업 추진 현황

단위: ha

연도	신규선정 (교육컨설팅 1회차 지원)		2회차 지원		3회차 지원		교육컨설팅 지원 누계		시설·장비 지원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2009	12	1,866	–	–	–	–	12	1,866	12	1,866
2010	18	2,694	–	–	–	–	18	2,694	18	2,694
2011	69	15,039	14	2,295	–	–	83	17,334	–	–
2012	19	4,521	24	6,295	7	1,140	50	11,956	6	1,670
2013	14	2,920	19	4,380	19	5,146	52	12,446	7	1,957
2014	26	7,686	16	3,306	17	4,312	59	15,304	20	4,588
2015	66	16,388	23	7,017	15	3,297	104	26,702	25	9,124
2016	48	10,480	22	8,196	11	3,997	81	22,573	35	7,917
계	272	61,594	118	31,489	69	17,892	459	110,875	123	29,816

자료: 박문호·허주녕·오정태(2016). 『들녘경영체 운영효과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년에는 쌀선도경영체 교육훈련과 RPC 교육·홍보·컨설팅이 사업 내용에 추가되었다. 쌀선도경영체 교육훈련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시행하며 매년 5,000명 내외를 대상으로 실시해왔다. RPC 교육·홍보·컨설팅은 정부지원 RPC를 대상으로 4년 씩 지원하였다(연간 지원 개소 수는 14개소 내외로 유지).

2016년부터 들녘경영체가 추진하는 사업 다각화 활동도 지원하였다. 이전에 교육·컨설팅과 시설·장비를 지원받은 들녘경영체에서 추진하며, 2016년에 10개소를 선정하여 국비 24억 원을 지원하였다.

▮ 사업 내용

‘조직화 촉진 지원’, ‘사업 다각화 지원’, ‘쌀선도경영체 교육훈련’, ‘RPC 교육·홍보·컨설팅’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유형별 사업 지원 내용은 아래의 <표 2>와 같다. 지원 유형 중 ‘조직화 촉진 지원’은 들녘경영체 조직화에 필요한 교육·컨설팅을 제공하고 시설과 장비를 지원한다. 나머지 지원 유형들은 조직화된 들녘경영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로 한다.

표 2. 들녘경영체 육성 사업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지원 대상	주요 내용	지원 방식
조직화 촉진 지원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정부지원 RPC	교육비: 재배기술, 농기계 조작관리, 법인의 조직 관라경영 등에 관한 교육비 지원	들녘경영체 공동 영농 면적에 따라 차등지원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컨설팅비: 작부체계, 재배기술, 농기계 운영, 조직 관리, 생산비 절감 등에 대한 컨설팅 비용 지원	
		운영비: 시설·장비의 임차료·유류비, 수리비, 공동육묘에 필요한 유류비·종자비 지원	
		공동영농조직을 구성하여 생산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설치비(토지 제외, 공동육묘장과 방제기 우선 신청) 지원 ※ 작파 파종기, 콩 전용 콤바인, 조사료 생산 장비 등	들녘경영체 공동 영농 면적에 따라 차등지원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사업 다각화 지원	조직화 촉진 지원을 받은 들녘경영체	컨설팅: 사업 영역 확대에 필요한 조직 관라·경영, 인사·회계 분야, 중장기 사업계획, 소득 창출, 일자리 연계·창출 등	개소 당 전체 사업비 10억 원 또는 20억 원 이내로 사업기간은 2년(10억 원) 또는 3년(20억 원) 분할 지원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기반정비: 쌀 중심에서 이모작 확대, 타 작물 재배를 위한 배수개선, 암거배수 등 생산기반 정비	
		시설·장비: 농산물 가공·판매와 체험·관광 연계에 필요한 시설·장비, 생산품목 변화와 사업 규모 확대에 필요한 시설·장비	
쌀선도경영체 교육훈련	들녘경영체, 쌀 전업농, RPC 임직원, 농업경영체 등	쌀 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한 쌀선도경영체의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국내훈련: 연간 5,000명 내외 국외훈련: 연간 40명 내외 (국비 50%, 자부담 50%)
RPC 교육·홍보·컨설팅	정부지원 RPC (시설현대화 대상 RPC)	교육: 브랜드 경영체 및 참여조합 임직원 국내위탁교육(경영, 브랜드, 마케팅, 전문CEO 교육), 판매 담당직원의 마케팅 교육, 대형유통업체 종사자 초빙 교육, 계약재배 농가 교육 및 홍보물 제작, 현장견학 등	개소 당 총 사업비 2억 원 이내, 4년간 지원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홍보: 브랜드쌀 개발 및 홍보(전단지, TV, 라디오, 인터넷 등), 소비자 초청 행사 등	
		컨설팅: 사군단위 시설통합, 현대화, 성능평가에 관한 컨설팅, 브랜드 마케팅 및 경영 컨설팅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7). 「2017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2. 사례조사 결과*

▮ 사례지역 사업 현황

영농 규모화 및 조직화를 통해 농업 소득을 증대하고자 78호의 농가가 모여 2006년에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했다. 당시 공동 영농 면적은 400ha를 조금 넘었다. 2012년에 '들녘경영체 육성 사업'에 선정되어 들녘경영체 조직화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비, 교육비, 컨설팅비 등을 지원받았다. 2015년에도 사업을 신청하여 시설·장비 구입비를 지원받았다. 2016년에는 사업 다각화 지원 대상 들녘경영체로 선정되어 생산·유통·가공·체험 기반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고 있다. ○○영농조합법인에 가입한 조합원 농가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180호 농가가 들녘경영체 활동에 참여하며 공동 영농 면적은 약 1,300ha에 이른다.

▮ 사례지역 사업 추진 내용

○ 들녘경영체 육성 사업 예산 지원 현황

2012년 ○○영농조합법인은 '들녘경영체 육성 사업'에서 들녘경영체 조직화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금 3억 원과 교육·컨설팅 비용 3,000만 원을 지원받았다. 2015년에도 사업을 신청하여 시설·장비 지원금 4억 원과 교육·컨설팅 비용 3,710만 원을 지원받았다. 2012년과 2015년 모두 지원 예산의 10%는 자부담으로 충당하였다.

2회에 걸쳐 지원받은 교육·컨설팅 비용으로 재배 기술 향상, 농기계 관리, 조직 관리·경영에 필요한 교육·컨설팅을 제공받았다. 또한 2012년에 지원받은 시설·장비 지원금으로 공동 방제기와 기타 농기계 2대를 구입하였고, 2015년에 받은 시설·장비 지원금으로 친환경 육묘장을 설치하고 살포기, 지게차, 굴삭기 등의 농기계를 구입하였다.

2016년에는 사업 다각화 지원 대상 들녘경영체로 선정되어 시설·장비 지원금 3억 9,950만 원과 홍보 마케팅 및 컨설팅 비용 5,000만 원을 지원받았다. 예산의 20%는 자부담으로 충당하였다. 시설·장비 지원금으로 트랙터 2대, 로타베이터 2대, 로우더 2

* '들녘경영체 육성 사업'에 참여한 농업법인 중 1곳을 선정하여 2017년 11월 28일에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업 담당자와의 면담 내용과 방문한 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례조사 결과를 정리하였다.

대, 무논 정지기 1대, 베일집게+원터치 1대, 결속기 1대, 반전집초기 1대, 모우어 1대를 구입하였다. 홍보 마케팅 및 컨설팅 비용은 역량 강화 교육 1,000만 원, 컨설팅 2,000만 원, 홍보 마케팅 1,000만 원 등으로 사용하였고, 도시 소비자 초청 행사를 개최하는 데 1,000만 원이 추가로 소요되었다.

▮ 사례지역 사업 추진 실적 및 성과

○ 공동 생산으로 생산비용 절감 및 농업 소득 증가

현재 ○○영농조합법인이 평균적으로 수확하는 벼의 양은 매년 7,000톤에 이른다. '들녘경영체 육성 사업' 이후로 공동 영농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의 쌀 농가가 증가하여 법인의 쌀 생산량은 예전에 비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또한 2015년에 설치한 공동 친환경 육묘장에서 쌀 품종의 모종을 엄밀하게 관리하여 품질을 유지·관리하고 상품성을 높여 농업 소득을 증대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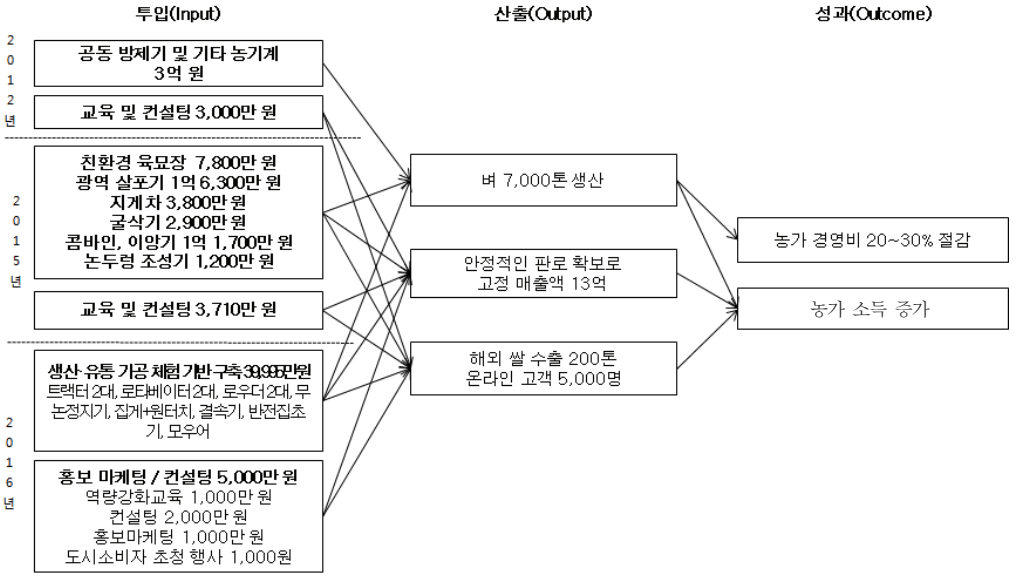
농자재와 농기계를 공동으로 구매하여 생산비용도 절감하였다. 모든 농자재는 법인이 공동으로 구매하고 조합원 농가와 함께 사용하여 경영비를 20~30% 절감하였다. 또한 농기계를 공동으로 구입하므로 농가들이 개별적으로 농기계를 마련하거나 임차할 필요가 없다. 공동 방제기 구입을 우선으로 하는 사업 지침 덕분에 농약 살포도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졌다.

○ 안정적인 판로 확보

○○영농조합법인은 공동으로 생산한 벼를 수매하여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도 판매한다. 국내에서는 계약재배·출하로 연 매출액이 약 13억 원에 이른다. 온라인으로 법인의 쌀을 구입하는 고객도 연 평균 약 5,000명이나 된다. 공동 영농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들은 판로 걱정 없이 생산에만 집중한다.

쌀 수출은 주로 ○○시청에서 지원한다. 해외 업체들과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법인 스스로도 다양한 판로를 개척하여 2016년에는 약 200톤의 쌀을 수출하였다.

그림 1. 들녘경영체 육성 사업의 성과 (○○영농조합법인)



3. 시사점

▮ 농업 분야 유관 기관과의 협력

들녘경영체를 육성하려면 '들녘경영체 육성 사업'과 관련이 있는 농업기술센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어촌공사, 농협, 유통·가공 업체 등 농업 분야 유관 기관과의 협력이 중요하다.

공동 영농 작업에 적합한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생산할 쌀을 안정적으로 유통하려면, 농업 분야 유관 기관에서 추진하는 활동들을 들녘경영체에서 기획하는 사업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협력하여 생산 기반을 정비하고, 농업기술센터로부터 재배기술 및 농기계 조작·관리 등에 관한 교육·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들녘경영체에서 생산하는 쌀의 품질 관리 및 인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력할 수 있다. ○○영농조합법인은 한 농식품 유통업체와의 계약재배·출하를 통해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였고, 행정기관의 도움으로 해외 판로를 쉽게 개척할 수 있었다.

▮ 교육·컨설팅 지원 강화

○○영농조합법인은 '들녘경영체 육성 사업' 이전부터 영농의 규모화·조직화를 추진하였다. 오랜 기간 동안 축적한 노하우가 있어 들녘경영체를 조직화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하지만 사업을 진행하는 모든 들녘경영체가 ○○영농조합법인 만큼의 역량을 지닌 것은 아니다. 들녘경영체를 조직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들녘경영체는 여러 농가가 참여하는 공동 영농 조직이므로 사업 추진 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다. 조직 관리·운영에 대한 교육·컨설팅이 뒷받침 되어야 이해관계자들 간의 이견이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다. 또한 공동 생산 과정에서 작부체계, 재배기술, 농기계 운영·관리 등에 관한 컨설팅을 제공받아야 공동 영농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현재는 들녘경영체가 지원받은 예산에서 교육·컨설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지만 지역별로 살펴보면 들녘경영체 운영에 도움이 되는 컨설팅 인력과 교육 프로그램이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들녘경영체 상호 간에 조직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전문화된 교육·컨설팅 지원이 가능한 기관 및 인력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농어촌 삶의 질 이슈리포트 2017 **(통권 제8호)**

인 쇄 2017. 12.
발 행 2017. 12.
발행인 김창길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FAX 061-820-2211
http://www.krei.re.kr
인쇄처 ㈜한디자인코퍼레이션 전화 02-2269-9917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우리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